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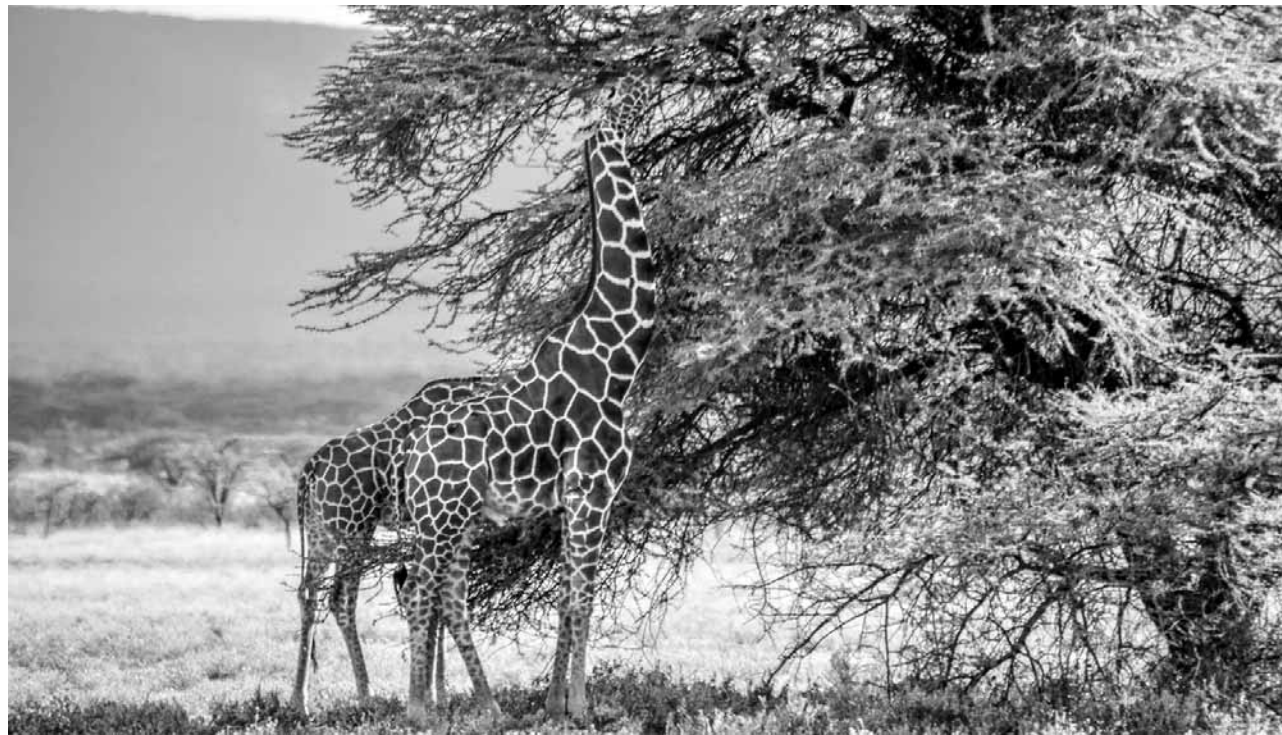
나무는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사회적 존재

나무수업

패터 볼레벤 지음



#아프리카 기린은 사바나에서 자라는 '우산아카시아' 잎을 먹는다. 아카시아는 기린을 쫓아버리기 위해 몇 분 안에 유독물질을 잎으로 내보낸다. 그 사실을 알아차린 기린은 바로 옆에 있는 나무 대신 100m나 떨어진 나뭇잎을 먹는다. 왜냐? 잎을 뜯어 먹던 아카시아는 '경고가스'를 방출해 주변 같은 종 나무들에게 적어 왔다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다. 그러면 주변 나무들은 유독물질을 잎으로 내려 보내 자신을 방어한다.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나뭇잎을 뜯어먹고 있는 기린. 기린이 나뭇잎을 뜯어먹으면 나무는 유독물질을 내보내고 주변 나무에도 적어 왔음을 경고한다.

#암·수나무가 따로 있는 '호랑버들'은 근친상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짝짓기 전략을 세웠다. 수정이 되려면 벌이 반드시 먼저 수나무 꽃가루를 묻혀야 한다. 암나무에 전달해야 한다. 그렇다면 벌은 수나무와 암나무를 어떻게 구분할까? 수나무는 우선 향기로 벌을 유혹한 후 '미상화서'(尾狀花序=화축이 하늘로 향하지 않고 밑으로 처지는 꼬리모양의 꽃차례)로 용을 써서 자기 몸을 노란 형광색으로 빛나게 만든다.

독일 패터 볼레벤이 쓴 '나무수업'은 30여년간 나무를 돌보고 숲을 관리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환경생태 에세이집이다. 저자는 친환경적인 산림경영을 하는 독일 힘벨 조합에서 일하는 산

림경영지도원이다. '따로 또 같이 살기를 배우다'란 부제를 붙인 이 책은 나무와 숲에 대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나무도 감각과 감정, 기억을 갖고 있다거나 나무 한 그루가 외부 공격을 받으면 주변 다른 나무들에게 위험을 알리며, 나무도 학습을 할 수 있고 뿌리에 경험과 기억을 저장한다는 저자의 얘기는 언뜻 믿기지 않는다. 저자 역시 20여년 전만 해도 매일 수천 그루의 너도밤나무 등을 바라보며 '이것들의 상품가치는 얼마나 될까'를 따지며 목재생산에 주안점을

을 둔 현대적 산림경영 시각의 테두리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서바이벌 트레이닝'과 '통나무집 투어'와 같은 산림관광 상품을 기획하며 비로소 숲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수 있었다고 한다.

나무와 숲의 세계는 인간의 삶과 닮았다. '나무 공동체'는 어린 세대를 보살필 뿐만 아니라 늙고 병든 이웃을 돌보기도 한다. '엄마' 너도밤나무는 다른 어른 나무와 힘을 합쳐 숲 전체에 두꺼운 지붕을 씌운다. 그 결과 '아기' 나무의 잎까지 도달하는 햇빛 비율은 3%밖에 안 된다. 느리게 자라게 함으로써 '아기' 나무가 폭풍에 쉽게 부러지지 않고 균류에

대한 저항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오랜 기간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 병든 나무는 이웃 나무의 지원을 받는다. 왜 나무는 자신의 영양분을 다른 개체와 나누는 것일까? 저자는 "인간 사회처럼 나무 역시 함께하면 더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나무는 사회적 존재'라는 주장이다.

이 책은 독자들이 저자와 동행해 대자연의 숲을 거닐며 생명과 생태계에 대해 관찰하고, 자신의 삶과 연관시켜 사색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제공한다.

〈이마·1만3500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호기심은 용기보다 강한 힘... 질문이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큐리어스 마인드

브라이언 그레이저 지음



트씨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그는 채용했다.

그가 1년간 맡은 일은 영화 관련 계약서와 법률 서류 등을 관련자들에게 전달하는 '서류배달원'이었다. 그가 서류를 전해야 할 사람들은 당시 할리우드 엘리트, 권력자, 유명인사, 작가, 감독, 스타였다. 그들이 몸서리 '궁금했다' 그는 비서들에게 "이 서류를 꼭 직접 전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단 한명도 빠

지지 않고 서류 주인들과 직접 만났고, 그들에게 솔직한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들었다. 이후 그는 아카데미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한 '뷰티풀 마인드'를 비롯해 '아폴로 13', '다빈치 코드', '아메리칸 갱스터' 등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를 만들어 낸 영화 제작자가 됐다.

브라이언 그레이저가 쓴 '큐리어스 마인드'는 호기심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바꾸는 지 들여다본 책이다. 저자는 35년간 매우 다양한 사람들과 호기심 대화를 나눴다. 버락 오바마, 앤디 워홀, 오프라 윈프리 등을 비롯해 물리학자, 힘학자, 우주비행사를 포함한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었고, 그 이야기 속에서 호기심의 가치를 깨달았다.

총명함이나 불굴의 의지, 사회적 관계보다 호기심 덕분에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됐다고 말하는 저자는 호기심은 마주하는 모든 일에 대한 에너지와 통찰력을 불어넣고 문화와 교육 분야에서 창조나 혁신만큼 중요한 가치라고 주장한다. 저자에 따르면 호기심은 발견을 위한 도구, 이해를 돕는 비밀 무기, 창조와 연감의 자극제, 스토리텔링의 열쇠, 용기보다 강력한 힘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관계를 이어주는 중요한 고리다.

아인슈타인은 말했다. '내게는 특별한 재능이 없다. 단지 열렬한 호기심이 있을 뿐이다.' 호기심 대화의 기본은 '질문'이다. 〈열림원·1만4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세상을 바꾼 10권의 책=일본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이자 다독가인 저자 이케가미 아키라가 인류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10권의 책을 선정해 쓴 독서에세이.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불안과 혼란에 빠진 일본 사회를 치유하기 위해 펴낸 이 책에는 '안네의 일기' '성경' '코란' '자본론' '종의 기원' '침묵의 봄' 등 친숙한 고전들이 수록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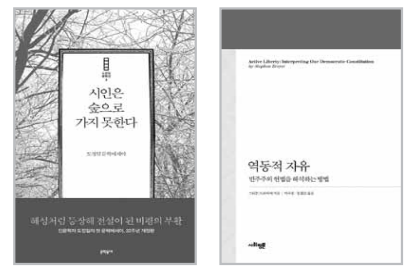
〈상굿·1만4000원〉

▲독일사 산책=영국박물관과 BBC가 공동 기획한 역사 프로젝트 '유럽사의 서문을 장식한 독일의 가다' 히틀러와 유대인 학살을 지행했던 나라, 무뎠고 딱딱한 독일 병정과 무서운 냉전시대를 떠올리기 쉬운 나라 독일. 그러나 책의 저자이자 영국박물관장인 닐 맥그리거는 "독일은 최근의 시리아 난민처럼 흑독한 난민 시절을 겪었고 합의를 통해 작은 나라들을 이끌어온 느슨한 연합체"라고 말하며 독일의 건물과 물건, 사람과 장소를 통해 유럽사의 중심에 서 있는 독일사를 풀어낸다.

〈옥당·2만8000원〉

▲시인은 숲으로 가지 못한다=문학평론가 도정영의 첫번째 저작 '시인은 숲으로 가지 못한다' 개정판. 1994년 당시 늦깎이 신예 비평가였던 저자의 책은 출간 후 입소문을 타면서 평론집으로서의 이례적으로 10쇄 1만부의 판매고를 올리고 절판된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절판 상태의 책이 출간 22주년 개정판으로 출간된 '시인은 숲으로 가지 못한다'는 2016년에 새로 소환해낸 비평 버전의 '응답하라 1994' 인 셈이다. 〈문학동네·1만4800원〉

▲역동적 자유=현직 미 연방대법관 스티브 브라이어의 헌법 해석론. 저자는 최



고법원의 판사는 헌법의 문언적 한계를 넘어 헌법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목적에 해석적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의 문언 속에서의 해석을 통한 문제해결이 불가능할 때, 최고법원의 판사가 '역동적 자유'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해결책을 고안해 제시하는 것은 불가피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사회평론·1만7000원〉

▲하이-라이즈=툼 히틀스텐, 제레미 아이언스 주연의 영화 '하이-라이즈'의 원작 소설. 'SF소설의 거장'이자 뉴웨이브 운동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J. G. 베러드의 장편소설 '하이-라이즈'가 영화 개봉을 앞두고 개정판으로 나왔다. 벨리드적인 묘사와 이미지가 충분히 살도록 원문과 대조하며 문맥과 문장의 표현이 더 분명해지도록 했다. 또 SF의 정전(canon)이란 가치에 어울리도록 현대적인 느낌으로 표지를 바꾸면서 새로운 SF 독자를 겨냥해 한 손에 잡을 수 있는 판형을 선택했다. 〈문학수첩·1만3000원〉

어린이 책

▲만지지 마! 내 몸이야! =소중한 아이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스러운 부모와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책. 아동 성범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아이와 함께 읽으면서 이야기 속의 구체적 인 상황을 통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다.

〈씨줄출스·9800원〉

▲빌리 밀러=2014년 뉴베리 아너 상 수상작. 새로운 환경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아이들을 응원하는 작품이다. 어느 날 사고로 빌리의 머리에 혹이 생긴다. 의사 선생님은 관장을 거르고 했지만 빌리는 자꾸 혹이 신경 쓰였다. 여름 방학을 앞두고 반 아이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된 빌리.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안고 잘 해낼 수 있을까? 〈스폰북·1만1000원〉

▲52층 나무 집='13층 나무 집'이 나온 후 1년. 나무집은 어느새 '52층'으로 높아졌다. '52층 나무 집'에는 거대 헤어드라이



어, 만능 변장 기계 5000, 난자 달팽이 훈련소 등 기발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앤디와 테리는 '큰고 사장님 실종 사건'의 중요 목격자인 에벌레와 바다에 널브러진 채소 잎사귀 단서를 발견하고 수사에 나선다. 〈시공주니어·9500원〉

▲파트너 구하기 대작전=저마다 걱정거리 때문에 마음이 까맣게 졸라든 네 명의 아이가 각자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맞는 특별한 순간을 담은 동화집. 자신을 둘러싼 환경 안에서 오늘날 한 뼉씩 마음이 자라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간결하고 담백한 문장으로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라임·9500원〉

2016년 재창업패키지 교육안내

전액 국비지원

음식문화체험관광교육생 모집

3월 20일 일요일까지 접수합니다

체험학습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화 과정

1. 교육 대상 : 업종전환 희망 소상공인 및 폐업자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본인 및 가족, 직원에 한함)
2. 교육 비용 : 전액 국비지원
4. 모집 기간 : 2016. 3. 20(일)까지(일요일 접수가능)
5. 교육 인원 : 20명 (선착순모집)
6. 교육 내용 : 팸투어가이드 창업, 스토리텔링 마케팅, 맛집 벤치마킹 실습, 음식문화 체험프로그램 개발,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팸투어 상품 판매전략, 팸투어 견학 등
7. 수료후 혜택 : 소상공인정책자금 우선지원 대상 혜택 부여(최대1억) 창업 및 마케팅 관련 저문지원 정부, 지자체 각종 지원자금 및 지원사업 정보제공

▶교육기간 : 2016. 3.21(월) ~ 4.6(수)
▶교육시간 : 13:00 ~ 19:00 (60시간)
▶교육인원 : 20명(선착순 모집)
▶교육신청 : 소상공인포털 교육정보시스템 <http://edu.sbiz.or.kr> 접속
▶교육장소 : 한국지역산업연구원 1교육실

교육문의 062)515-0300

광주 북구 하남대로 697 송림B/D 2F(구. 소상공인창업전략연구소)

주최 | 중소기업청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주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행 | 한국지역산업연구원
Korea Region Industry Institute